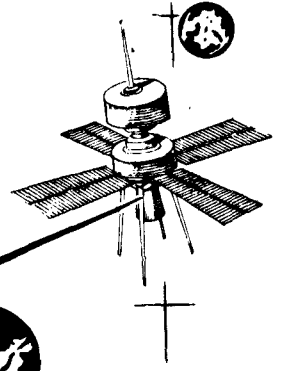


양
계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문화국민과 올림픽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충실히 살려는 나(自我)와 남이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의식하고 사는 나(他我) 등 2개의 '나'가 공존해 있는데 서구사람들은 대체로 전자가 강한테 반해 우리 한국인은 남을 의식하는 후자가 강해 남이 보는 나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운다. 무리해서 나를 상향시키는데 안간힘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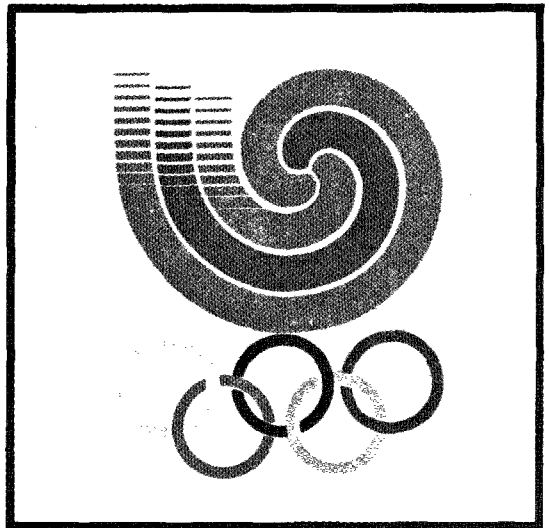
자신감이 없다보니 외국의 것을 무작정 모방하는 것도 모자라 서구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너무나 엄한 환경 속에서 해도 좋다는 것보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았고, 자유 보다는 부자유와 제한이 더 많다보니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감의 상실은 패배의식을 느끼게 했으며, 패배의식은 사회생활에서 타협과 비굴을 조장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지구가 도는한 역사는 계속 변한다.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는 엄한 것 모르고, 기를 죽이지 않는답시고 마구 방임(?)해 키우다 보니 대체로 겁없이 키워진 세대가 되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반면 콘사이스식 지식을 즉석에서 흡수, 적용하는 빠른 머리회전으로 자기편한대로 만사를 해석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값진 전통적 유산이 없음을 한탄한다.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잠실벌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통해 우리는 전세계가 하나임을 가슴깊이 느꼈으며 '인간의 움직임'에서 기인한 체육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규칙과 질서 위에서 참된 평화와 도덕성의 부활을



우리 모두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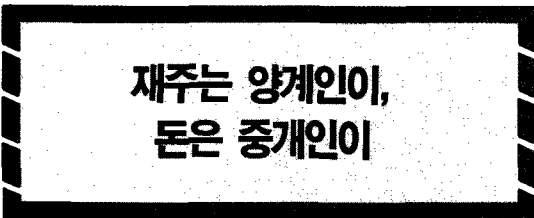
특히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스타디움이 아닌 한강선 박에서 북소리로 화려하게 시작된 우리 사상, 우리의 색채, 우리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주체감의 결정체 입장식 행사를 보며 서울의 경이와 한국인의 긍지를 한껏 느꼈음은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평소에 외면해 왔던 「북소리」가 일찌기 이렇게 가슴을 고동치게 했는지, 우리 문화의 독창성이 이렇게도 뛰어났는지, 과거 자괴심을 벗고 우리 것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에 뿌듯함을 느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경기장에 울려 퍼진 정소리, 에밀레종소리, 농악, 사물놀이, 민요가락, 부채춤, 태극선, 학춤, 취타대행진 그 어느하나마다 우리 냄새가 물씬나는 한국문화에 대한 독창성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전국민의 가슴마다 파도쳤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문화선진국의 전통적 유산을 찾았다고 보며 또 그것을 세계에 확실히 알렸다는 자긍심에 우리 국민도 정치·경제·사회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충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아의 재발견에 노력을 기울이자.



**재주는 양계인이,
돈은 중개인이**

우리는 중개인 없이 싸움도 못한다. 먼저 양팔의 소매를 걷고 신발끈을 고쳐매고서 손바닥에 침을 뿜뿜 뱉고는 주위를 향해 “말리지 말라”고 한 상대를 향해 “때려, 때려!” 하며 얼굴을 내민다. 먼저 피해자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누군가 제3자가 가운데 들어서 말려줄 것을 기대하며 말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려줄 것을 강하게 의식하는 중개의식(仲介意識)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면에 인사도 누군가의 소개가 필요하고 결혼도 중매결혼이 성하고 있다. 심지어 콩 한 말 팔

고 돼지 접붙이는 일까지도 거간(居間)을 드린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권은 중개업자인 재주가 갖고 있었다.

중간 유통마진이 원가보다 상회하는 원천적 이유도 이 억센 중개문화 때문이라 생각된다.

공산품 평균 유통마진이 29.7%로 제품가격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물가당국 자료에 의하면 화학제품(의약품 등) 평균 43%, 가공식품 32.3%, 석유제품 13.7%, 농수산품은 유통구조가 복잡해 무려 43.6%에 달하고 있다.

최근 양계업계에 유통상인의 횡포가 극성을 부려 많은 양축가들이 불합리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병아리 소개소, 사료 중개상, 계란 유통상 등에 의한 생산자들의 불이익이 자행되고 있다. 필요악인 이들 중개인(소개소)들이 비대해져 육계에 있어 그들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한다.

양계인들은 닭똥 냄새와 더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근근히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중개인들 배에는 너무 기름이 끼는 것은 아닌지?

산란노계상의 경우 정보에 어두운 양축가에게 거짓정보를 흘려 일시에 노계출하를 유도, 300~500원의 가격변동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계란도 농장출하 등급중량을(특히 특란의 경우가 심해) 상향조정 폭리를 취한다.

육계에 있어서 소개소를 통하지 않고는 입·출하가 어렵다 호소한다. 양축가가 경기를 전망, 입추하기 보다는 병아리 소개소 판단에 의해 입추하고, 출하시에도 정보가 어둡거나 일시에 많은 물량출하를 위해 닭소개소를 찾는다(수수료 kg당 10원). 육계 생산자 중 7할 정도가 소개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1일 1만수를 거래하는 소개소는 월간 수입이 6백만원에 달해 경비를 제외하면 3백만원은 족히 순이익이 된다. 물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육계 사육형태가 몇년 전부터 대량으로 일시에 all in, all out 방식으로 전환하여 필요에 의해 나타난 신종 직업으로 일부 생산자가 혜택을 보고는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지 않다.

각 지역별로 조합·계우회 등 생산자 조직이 좀 더 강해져 생산자 스스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끈질기고 집요한 중개문화 병폐로 재주는 양계인이, 돈은 중개인에게 가는 것이 안타깝다. **양계**